

김태균 “웨스팅하우스 넘는 독자 노형 ‘반디’로 승부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블록형 SMR〉

캔드모터 냉각재펌프 등 기술 접목 부유식 발전선·원자력 추진선 최적 기본설계 단계... 2038년 상용 운전 올해 3배 인원 채용... 우수인재 보강



남금희 한전기술 사업개발팀장이 27일 경북 김천 한전기술 홍보관에 마련된 반디모형 앞에서 해양용 SMR '반디(BANDI)'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형 사진엔 김태균 한국전력기술 사장. /한전기술

“기술 자립은 이뤘지만, 지식재산권(IP) 문제로 수출이 제한적인 ‘사업적 비자립’ 상태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 관계없는 우리만의 독자 노형 ‘반디(BANDI)’를 앞세워 설계 회사가 직접 노형을 파는 ‘엔지니어링 펌프리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김태균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지난 27일 김천 본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전기술의 미래 사활을 건 독자 노형 개발을 통해 기술자립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한전기술이 추구하는 미래의 핵심 가치로 독자 노형 해양용 SMR ‘반디(BANDI)’를 꼽았다. 한 여름 밤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에서 이름을 딴 이 모델은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

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반디는 기존 경수로 기술을 바탕으로 캔드모터 냉각재펌프 등 혁신 기술을 접목한 블록형 SMR이다. 특히 해양의 6-자유도 운동에 대비한 설계로 부유식 발전선과 원자력 추진선에 최적화됐다. 2012년부터 시작된 반디 개발은 현재 선박추진용 기본설계 단계에 있다. 2027년

사업화 모델 확보, 2030년 표준설계 완료를 거쳐 2038년 상용 운전을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김 사장은 “베트남 비텔(Viettel)과 데이터센터용 SMR 공동 연구를 협의 중이며,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단순 용역사를 넘어 독자 노형을 가진 기술 리더로 거

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현재 5% 수준인 설계 마진을 10% 이상으로 현실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90년대 11%에 달했던 설계비 비중이 현재 5%대까지 떨어졌다”며 “글로벌 설계사인 벡텔 등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가혹한 환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설계가 우수해야 시공과 유지보수비가 준다”며 마진을 10% 회복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탑코리아 정신을 유지하되, 독자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직접 공략하겠다”며 “한전기술의 위상을 단순 용역사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를 토대로 우수 인재 보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탈원전 시기 약 8년 간 발생한 인력 단절을 메우지 못하면 세계 1위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사장은 “작년에는 예년보다 2배, 올해는 3배의 인원을 뽑을 것”이라며 “베트남과 체코 등 해외 사업이 본궤도에 올

랐을 때 사람이 없어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들이 역대 연봉으로 인재를 데려가는 현실에서 우리도 마이스터 제도 등 실력 있는 엔지니어를 예우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의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시장도 동시 공략한다. 특히 기존 화력발전 설계 인력을 미래 에너지인 해상풍력 분야로 재교육해 배치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 ‘넥사(NEXA)’를 통해 3년 내 도면 자동 생성 등 지능형 설계 체계를 완성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도 공개했다.

김 사장은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은 ‘공부하는 문화’였다”며 “지방 이전 이후 인력 확보가 쉽지 않지만, 최고 수준의 교육 투자와 설계 가치 제고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원전해체 현장에 원격제어 로봇 투입 준비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공모에 원복원 선정... 총사업비 241억 규모 실증센터·맞춤형 교육체계 등 구축



중수로해체연구소 조감도.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원전해체 현장에 투입될 원격 제어 로봇의 성능을 검증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가 구축된다.

재단법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하 원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총사업비 241억원 규모의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경북·경주·부산·울산 등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원전해체 기술 자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간 진행되며, 핵심 과제는 ▲방사선환경 로봇 실증센터 구축과 ▲현장형 전문 인력 양성 기반 마련이다.

사업비 중 약 198억원이 투입되는 ‘방사선환경 로봇 실증센터’는 실제 원전해체 상황과 유사한 방사선 모사 환경에서 상용 규모의 원격해체 장비를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곳에서 장비의 작동 수명과 정밀도 등 신뢰성 평가를 수행해 국내 원전해체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 42.4억원을 들여 특성화고 학생부터 산·학·연 재직자까지 아우

르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실제 장비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 해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원복원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경수로 mock-up(모형) 시설을 구축하고 방사선 측정 로봇 ‘크리독(KRIDOG)’을 개발하는 등 관련 기술을 선도해왔다. 특히 2026년 하반기 경주 양남면에 준공 예정인 중수로해체연구소와 이번 신규 사업을 연계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권병훈 원복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기술 실증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방사선환경 로봇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을 선도하는 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마련된 한국관. /aT

싱가포르·우즈벱서 ‘K-푸드’ 수출길 연다

aT, 싱가포르서 1128만弗 업무협약 우즈벱 박람회서 102건 바이어 상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동남아·중양아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K-푸드 및 외식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의 한 축이다.

28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하순 우즈벱키스탄과 싱가포르 현지박람회에서 행사장 내 ‘한국관’을 설치하고, 국내 수출업체와 바이어 간 업무협약 주선에 나섰다.

지난 21~24일 나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식품·음료 박람회’(FHA Food&Beverage 2026)에서는 5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관에는 수출업체 41곳이 참여했다. 신선식품과 전통 장류, 스낵, 음료 등을 소개했다. 공사는 ‘건강·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현지의 소비 추이를 반영한 품목을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저당·고단백 소비 동향과 프리미엄 식품 선호를 고려해 건강기능식품과 유기농 스낵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할랄인증 식품 및 인기 길거리 음식 시연·시식 행사도 운영했다.

제주산 한우와 한돈을 활용한 시식권 경험 이벤트도 진행했고, 신규 품목에 대한 현지관심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홍보를 진행했다.

한국관에선 박람회 기간 총 854건·5917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뤄

졌다. 이 중 23건은 1128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으로 이어졌다.

싱가포르는 K-푸드의 수출확대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3월까지 대싱가포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딸기, 돼지고기, 소스류를 중심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9% 늘었다.

aT는 앞서 18~19일 우즈벱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우즈벱키스탄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Central Asian Franchising Expo in Tashkent)에도 참가했다.

이 행사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는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앙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외식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관에는 그중 수요층이 두터운 커피, 피자 등의 대중적인 프랜차이즈업체 3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행사장에서는 총 102건의 바이어 상담이 이뤄졌다. 일인용 피자를 주력으로 하는 피자 브랜드는 편리함과 가격 경쟁력으로 후속 상담 요청이 쇄도했다. 또 카페 전문 브랜드는 스낵류 PB 상품과 함께 현지에서 생소한 드립커피 제품에 대한 문의가 지속됐다.

우즈벱키스탄은 이미 신흥시장으로 떠올랐다. ‘서울문’이라는 한국의 거리를 모방한 상권이 조성될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다. 이미 중심 상권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K외식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농진청 말산업·축산 성장 협력

말 교감 치유 확산 등 3대 분야 추진

한국마사회가 농촌진흥청과 ‘말산업 및 축산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8일 마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주 경기 과천 마사회 본관에서 협약을 맺고 ▲말 교감 치유 활성화 ▲승용마 실증·조련 및 보급 확대 ▲국산 열풍건조 생산·유통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말교감 치유를 비롯해 말-원예 융·복합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지원에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수산자원공단, ‘바다숲 탄소거래’ 사업 추진

완도·제주 등 전국 20개소 선정

한국수산자원공단이 ‘2026년 바다숲 탄소거래 시범사업’의 사업지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전남 완도와 제주를 비롯해 전국 20개소에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바다숲 탄소거래 유형 15개소와 어업인 블루크레디트 유형 5개소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수산자원 조성’을 연계하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사업이다. 바다숲 조성·관리 및 해조류 양식을 통해 탄소흡수원(해조류·해조류)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생태계 회복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관련 어업인의 새로운 수익까지 창출하는 탄소거래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다.

공단은 2026년도 목표 관련해, 사업 프로세스를 현장 실증하고 각 해역별 특성화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사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모니터링 기법 개선, 참여자 지원사업 컨설팅 도입, 교육프로그램 확대(워크숍, 바다숲 탄소사업 학교 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